

월요광장



이승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4월이 되면서 국학기공을 보급하는 국학강사들이 바빠졌다. 이들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국학기공을 지도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국학강사들은 유료로 지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료로 지도한다. 거의 날마다 새벽에 나가 지도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닌데도 전국 곳곳에서 국학강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원 수련장'을 연다. 광주에서도 조선훈 뒀산, 전남대학교 등지에서 새벽에 수련 지도한 지 오래되었다.

1980년 안양 흥현당 공원에서 나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공원 수련을 시작하여 5년간 계속 지도하였다. 이를 단학지도자들이 이어 받고 이제는 전국 국학강사들이 이 수련 지도에 동참하여 실천하고 있

멘탈 헬스를 위한 신개념 운동법

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홍익정신이 바로 이 공원 수련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국학강사들에게 올해는 '멘탈 헬스 신개념 운동법'을 알려주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9개 도시에서 개최된 멘탈 헬스 특별강연회에 초청받아 스스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멘탈 헬스 신개념 운동법'을 소개한 것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1월12일 조선훈에서 특별강연회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신개념 운동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신개념 운동법은 영국 BBC가 과학 연구에 기초한 새로운 운동법을 소개한 것을 활용, 뇌파진동을 접목하여 새로 개발하였다. 그래서 이를 '멘탈 헬스 신개념 운동법'라 하였다. 왜 신개념인가? 지금까지 운동은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이 운동을 계속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과학자들은 운동 시간이 아니라 운동 강도에 주목했다. 운동 강도를 높이면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그래서 신개념 운동법이라고 한다.

내가 개발한 '멘탈 헬스 신개념 운동법'

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하는 뇌파진동을 하면서 "아~ " 소리를 크게 내면서 손과 발로 동시에 박수를 치는 운동법이다. "아~ "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할 수도 있고 웃으면서 할 수도 있다. 핵심은 이 운동을 하루에 20초씩 세 번 하는 것이다.

"20초 동안 하는 게 무슨 운동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실제로해보면 매우 힘든 운동이다. 전국 순회 특별강연 때마다 청중들에게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더니 다들 힘들다고 하였다. 동시에 소리치며 손으로 박수를 치고 발로 바다를 20초 동안 쉬지 않고 무르는 게 쉽지 않다는 데 모두 동감한다.

이렇게 1분간만 해도 아랫배 단전이 따뜻해지고 기가 강해지며 입안에 침이 고이고 머리는 한없이 맑아진다. 선도(仙道) 수련에서 말하는 정충기장신명(精充氣壯神明)이 단번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 발 박수를 1분 동안 하면 맥박수가 120에서 160까지도 올라간다. 발 박수는 하단전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하단전이 활성화되면 정(精)이 충만해져서 생리기능과 성호르몬이 활성화된다. 남자들은 힘이 좋아지고 여자들은 피부가 고와진다고 한다.

손 박수치기를 하면 기(氣)가 강해진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사람은 무병장수한다고

한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손바닥과 연결된 오장육부의 기혈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신진대사까지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30초간 박수를 치면 10m거리 왕복달리기를 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

"아~ " 소리를 크게 내면서 도리도리 뇌파진동을 하면 신명(神明)이 되면서 머리는 맑고 청량해진다. 뇌파진동은 우리 머리 속에 내려와 있는 신성(神性)을 흔들며 깨우는 뇌교육의 핵심수련법이다. 뇌파를 조절하여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진 참 생명력을 활성화하며, 인간성을 회복하는 수련법이다.

하루에 세 번 20초씩 이 '신개념 운동'을 해주면 리듬머신을 1주일도 두 번씩 한 시간 뛰는 것보다 훨씬 운동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 '신개념 운동'을 하루에 세 번만 해주면 몸이 바뀐다. 여러 명이 함께하면 집중력도 더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진다. 실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러나 '신개념 운동법'을 아는 사람은 참 북이 많은 사람이다.

'신개념 운동법'은 아주 간단하게 스스로 몸 관리를 하면서 집중력과 대인관계까지 좋아지는 운동법이라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를 하도록 적극 알리고 있다.

법조칼럼



김지현 변호사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행돼 어느새 1년이 넘어섰다. 이에 법률조력인 제도의 시행 성과 및 개선점 등에 대하여 다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조력인 제도의 근거법령이 마련돼 법률조력인 변호인단 모집을 할 당시 지원했고, 그 후 법무부에서 마련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지난 1년간 6명의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원래 법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지정돼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피해자 조사 시 수사기관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초기에는 법률조력인 지정이 피해자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필자가 지칭했던 경우도 모두 그러했다. 그러다 보니 지정된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해 보면,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을 고려해 법률조력인과의 면담에 소극적인 경우가 더러 있었다. 피해자에게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조서를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해 줄 것을 권유했으

나 그 후 방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해주지 않았다. 방문하지 않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방문을 독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 이후 어떠한 조력도 하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법률조력인 지정서만 바라봤던 적이 있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법률조력인 제도 또한 지난 1년 동안 많은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왔고, 지정 범위도 오는 6월 19일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조력인 제도가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제도의 존재를 널리 알리며 피해자가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시의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지정신청이 있거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 단계부터 법률조력인이 나서 고소장 작성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직까지 고소단계에서 지정된 경우가 없는 것을 보면 제도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요한 것은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의 성실성과 전문성이다. 최근 법률

조력인 제도 시행평가에서 피해자들은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와 연락이 어려웠던 점과 변호 의지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고 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면담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법률조력인 명부에 올라가 있는 필자에게도 빼어폰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만든 정부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법률조력인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다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후 만난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의지할 곳은 변호사님밖에 없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 짐을 느낀다. 지금까지 법률조력인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미미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더욱 준비된 제도적 장치 아래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기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달라진다

제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현재 광주·전남지역 농산물 유통업체 49천 개소의 농축산물은 물론, 음식점 4만4000개 업소에 대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배추김치·쌀 등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관리를 담당, 표시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2월 27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공포(시행일 2013년 6월 28일)에 이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메뉴판, 계산관 글자크기 등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2013년 1월 8일)했다.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점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계산관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표시를 하고 글

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해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현행 쇠고기·돼지고기·쌀 등 12개 품목에서 염소고기·명태·고등어·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대상품목이 확대되며,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다.

둘째,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 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점 수족관에 보관 중인 살아 있는 수산물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했다.

셋째,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점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계산관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계산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계산관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계산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넷째,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끝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음식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농관원은 이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활용해 음식점 종사자, 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현혹하는 광고 문구, 제대로 단속해야

광고카피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한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중요한 이 카피의 진실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얼마나 믿고 있을까. 아울러 소비자들이 철저히 믿는 이 상품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소비자자들이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규제와 제재는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피부 속 나이 10년까지 젊어집니다." 이

런 광고문구가 있다면, 그리고 이 문구가 사실상 허위문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사실인양 퍼지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솔직히 이런 광고 문구는 공중과 텔레비전처럼 규제와 엄격한 곳에는 등장하지 않더라도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저라시 선전지, 그리고 신문지에 끼워져 오는 광고

지와 잡지류의 광고 같은데서는 적잖게 보이는 문구다. 또한 어떤 성형외과 광고 카피가 걸 피부도 아닌 속피부의 나이를 10년이 나 젊게 한다던 어느 누군들 그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허위광고는 규제받아 마땅한 것인데 그 규제와 단속이 잘 안 돼서인지 이런 종류의 광고는 여전히 적잖게 보인다.

당장 광고 문구만 보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전혀 없는 제품, 당장 젊어질 것만 같은 자극적인 설명으로 누구나 애매할 수 있

다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현재 법적으로 수술체환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려 볼수록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고 이런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심지어 어떤 성형외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는 불법 광고도 한다. 이 역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되고 치료기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다. 소비자들이 속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권희숙·광주시 남구 입춘동

社說

광주 공사립 학력 심화, 특단의 대책 세워야

광주지역 국·공립과 사립의 학력 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상위 20개교 중 공립은 광주과학고와 상일여고 두 곳뿐이고 나머지 18곳은 사립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학교도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공립고로 학생 선발권이 부여된 곳이며, 선발권 없이 추천 배정하는 일반고에서 공립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최하위권인 40위권 밖에는 14개교 중 11곳이 공립이었다. '공저사고(公低私高)' 현상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2학년도 수능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언어·수학·외국어 3개 영역의 평균 7등급 이하 비율이 가장 적은 학교는 송덕고(1.6%)이며, 대광여고(5.0%), 동아여고(5.0%), 대동고(5.8%) 등의 순이라고 한다. 송덕고의 경우 학생 100명이 수능을 봤다면 이 중 1.6명이 7등급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광주지역 공사립 학교간 실력차는 어

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광주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립학교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타지역 학교로 옮기는 것은 이제 다반사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을 살리겠다고 강제배정을 밀어붙여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공립고의 부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다. 공·사립간 실적차가 엄연한 현실인데도 인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건 가당치 않다.

시교육청은 무엇보다 공립의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 명문학교였던 광주일고 등을 보더라도 공립학교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 학생들이 몰려오게 돼 있다. 먼저 학력 제고를 위해 우수교사 확보와 배치, 각종 지원 등을 과감히 해야 한다. 여기에 자율형 공립고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더 이상 공립고의 부실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

막대한 혈세 내고도 만족 못하는 대중교통

광주·전남지역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준공영제 실시로 해마다 300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운전기사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2년도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76점으로 2011년보다 5.1% 상승했다. 하지만 광주 4.75점, 전남은 4.52점 등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또한, 환승 소요시간도 광주와 전남은 전국 평균(4.19점) 보다 낮은 각각 4.14점과 4.15점을 기록하며 만족도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졌다.

대중이 교통이 혼잡한 서울 5.04, 대전 4.84, 부산 4.8 등보다도 뒤떨어지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6위, 전남은 14위 등을 머물면서 결국 광주 대중교통 운전

자들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이 타지역보다 심하다는 얘기가.

실제 광주시가 지난해 8월 집계한 승차 거부와 불친절, 난폭운전 등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270건에 달한다. 사안에 따라 승객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버스기사들의 하소연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난폭과 불친절 요인이 주운도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 지·정체로 인한 배차시간 압박, 버스 전용차로 부족 등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법행위는 많은 불편과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광주시가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여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라는 뜻이다. 운전기사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많은 혈세를 내고도 불친절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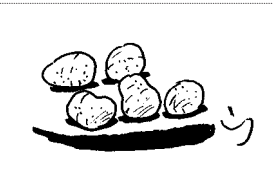
無 等 鼓

'해안선 5km 밖 모든 사람을 폭도로 간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그들은 며칠만 지나면 다시 마을로 돌아가 돼지를 키우고, 홀로 남겨둔 어머니를 모시며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기도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마을을 찾지 못했다. 1948년 11월, 제주 사 람들에게 벌어진 일을 그린 영화 '지슬'의 이야기다.

선댄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작으로 7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지슬'은 제주 4·3 항쟁을 다루고 있다. 사망자가 1만명이 넘는 처절한 사건을 다룬 영화지만 '지슬'은 한없이 무겁거나 비장하지만은 않다. 영화 상영 내내 한편의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묵

슬'은 상영 내내 한국어 자막을 내보낸다. 오랫동안 4·3 항쟁 등 제주 문제에 천착해온 제주 감독과 배우들이, 외국인들은 모르는 제주

지슬, 혹은 감자



다. 광주 영화인들은 광주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고 있을까. 4·3사건을 다룬 또 다른 다큐 '비밀'과 부산영화인들이 만든 '미스진은 예쁘다' 상영 소식에 지역

화인들의 현수증을 생각해 보게 된다. 아마도 '5월'을 다룬 영화 '26년'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인지도 모르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1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